

소리 없는 함성, 우레 같은 침묵이 바로 법정

“다산은 타의로 전라도 땅 끝 강진 땅에 유배되어 외롭고 쓸쓸한 다산초당에서 18년에 걸쳐서 학문 대업을 이루었고, 법정스님은 자의로 17년 동안 불일암에 칩거하면서 ‘무소유’ 불도를 깨치셨지요.”

다산과 법정 스님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다산연구회 구소 이사장 박석무(70). 2003년 다산연구회를 만들어 다산 사상을 널리 펴고 있는 박 선생은 2004년부터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메일링을 시작해서 현재 35만 명 남짓한 사람들에게 다산 말씀과 정국을 연결시켜 풀어내는 시사 메일을 보내고 있다.

“1976년 8월 나, 김남주, 김정길 셋이서 불일암을 찾았어요. 법정 스님에게 불교를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독재정권이 강고(強固)해지는데 스님이 불일암에만 계시어야 되겠다. 우리들이 떠돌아다니다 먹이지 않지만 스님같은 어른이 한 말씀을 하면 파문이 크지 않겠어요. 스님을 존경하고 무소유가 좋아서 모시러 갔지요.”

점심을 들고 광주에서 출발해서 해질 무렵에야 불일암에 도착했는데 스님은 계시지 않았다.

“엄청나게 더운 때였어요.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으려니 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밤새 나는 이야기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스



독재가 강고(強固)해지는데

불일암에만 계시면 되겠다...모시러 가

밖에서 꾸짖어 달라는 목소리에

말과 글 묵묵히 실천하는 걸로 답해

님 수필이야기도 하고, 민주회복을 향한 우리 열망도 이야기 드렸어요. 가지고 갔던 수박을 쪼개 먹었는데 스님이 팻바닥에 떨어진 수박씨를 하나하나 쓸어 담으시더군요. 왜 번거롭게 즐느냐고 여쭙더니 그냥두면 냄새를 맡고 개미들이 모여들어 잘못하면 밟아 죽이게 될지도 모르니까 쓸어 담아야한다고 그러셨어요. 불일암 마당 뒤쪽으로 달맞이꽃이 많은데 밤이면 꽃이 평평 쏟아지잖아요. 촛불 켜지듯이, 달맞이꽃이 병그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민주화 함성이 들리듯이 소리 없는 함성입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 표현이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예로부터 스님들은 여름안거를 마치고 만행 길에 오를 때 절신을 절반은 쫄쫄하고 단단하게 삼고, 나머지 절반은 활겉고 느슨하게 삼아 바람에 걸고 다녔다. 잘 다져진 길을 걸을 때는 단단하게 삼은 절신을 신고, 풀밭이나 산길을 걸을 때는 험거운 절신을 신었다.

“스님도 밖에 나오셔서 소리쳐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드리고 싶어도 분위기에 놀라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고는 헤어지면서 여기서 좀 추스르시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서울로 안 가시면 광주로 오십시오. 광주에서라도 자리를 잡으셔서 세상일을 도모해야지

안에서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스님은 ‘세월이 약이니까 세월을 좀 두고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말을 거절하거나, 차단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뒤로도 선생일행은 귀를 세우고 법정 스님 행적을 꾸준히 쫓았다.

“놀라운 일은 도인이든 종교인이든 간에 당신이 했던 말씀과 글대로 실천한 사람이 옛날 성인군자라면 모를까 없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입적하신 뒤에 김상사에서 널도 없이 얇은 흙정 같은 가사 하나 덮고 나오는데 그 때 엄청 추웠다고 그래요. 보도를 보니까 스님 뒤에 불자들이 따라오면서 ‘아이고, 우리 스님 추우시겠다. 널에도 안 들어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요새 세상에 글과 말을 실천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유일하게 가까이 간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무소유를 실천하신 일은 참 대단하다고 봐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만한 경지에 이르신 어른이 정말 잘못되어가는 시국에 대해서 ‘네이놈들! 백성 무서운 줄 알아야지. 어느 역사책에 이렇게 백성을 탄압하고 집권해도 되느냐고 쓰여 있느냐? 한 마디 하셔야 하는데 아쉬웠어요.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5·18이라던가 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좀 나서주셨으면 좋았으련만...”

실학자 다산 연구가다운 말씀이다. 마침 시인 안도현이 녹색연합에서 펴내는 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2011년 11월호 ‘좋은는 숲입니다’ 쪽지에서 나는 말씀이 떠올라 보였다.

“1980년대는 제가 쓰는 시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서 현실을 바꾸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때 현실이란 민주화랄지 통일이랄지 거창한 주제였어요. 거대 담론 속에 시를 계속 던져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90년대 중반에 시골 학교로 복직을 했는데 너무 커다란 것들만 쫓아갔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현실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들을 시에 담았죠. 들꽃, 나무, 양철지붕이나 또는 연탄, 뭇이런 작고 하찮은 것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큰 기관차나 나사못 하나 빠지면 멈춰서는 것처럼 말이죠.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꿨어요. 수마하의 <작은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성리학에서 이(理)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산은 이를 가지고는 작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며 무위논리를 씌어내지 않고는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 했다. “법제를 만들고, 생산도 해야 하고 기술도 개발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지 않느냐? 다산은 합리주의자이고 증거주의자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으면 뭘든 부인했어요.” 선생은 불교를 무위나 이에 치우친 종교로 여긴다. 그러나 당신이 한 말일지라도 그대로 따르지 말고 거듭 확인해보고 증명이 되면 따르라고 할 만큼 부타 가르침은 철저하게 실학이었다. 그렇더라도 선생 같은 학자라 오해를 하게 만든 책임은 온전히 한국불교에게 있다.

법정 스님은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 1972년 12월 유신철폐개헌서명 운동에 뜻을 함께 했고, 1973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1974년 민주회복

국민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1975년, 독재 정권은 인혁당재건위 사건이라 불리는 정치 조작극을 벌인다. 도예종을 비롯한 여덟 인사들을 국가전복기도협의로 구속, 사형을 언도했다. 그때 민주인사들은 입을 모아 독재정권 조작극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대법원 상고기 기각된 지 채 20시간도 지나지 않아 여덟 사람을 모두 사형시키는 만행을 저지른다. 큰 충격을 받은 스님은 “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재자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러자 독재정권은 보란 듯이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다. 스님은 생때같은 젊은이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든 반체제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일암을 짓고 산으로 들어갔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박해를 받으니까 중요성이 생기더군요. 내 마음에 독을 풀는 게 중요시인데 이래선 수형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하고 느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이탈하는 게 괴롭고, 중노릇하는 내 본분사가 뭐냐고 스스로 물었지요. 본래 자리를 돌아가지.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세상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지요.”

법정 스님은 붓다가 고요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며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불교를 주창하며 철저한 실천이 불교라고 했다. 불일암 시절 스님은 선생 말씀처럼 ‘소리 없는 함성’을 외치다가 강원도로 들어가셨다. 이대 뒤인 1994년 몸을 일으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펼쳐, 시민들 스스로가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히는 수행자로 사회운동가로 자연주의자이며 생태철학자로 작지만 큰 뜻을 펼치는 터전을 마련했다. 2010년 3월 11일 떠난 스님에게 ‘우레 같은 침묵’에 드셨다는 말씀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스님이 어디신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다산 초당에 가서 읽으니까 집에 앉아서 읽는 맛과는 견줄 수 없게 아주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쓰신 글을 읽었어요. 스님 입적에 앞서 나온 <내가 사랑하는 책들>에 소개된 국내 서적이 몇 권 안 되는데, 거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들어가 있더군요. 스님도 <유배지...> 보급에 한 몫을 하셨어요.”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생은 전남 무안 사람으로 다산(茶仙)으로 알려진 초이 선사와 동향이다. 1964년 대학시절에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처음 구속되었던 선생은 1965년 월남파병 반대 시위를 하다가도 구속됐다. “집회법과 반공법에 위반을 했다면서 조사를 했죠. 변호사들이 시험 때가 되었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으라고 풀어줬는데 집에 와보니가 군대 갈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구속됐을 때 학교에서 퇴학시켰기 때문이었어요. 하느님 수 없이 군대를 갔죠. 1968년에 제대해서 재입학을 했어요.” 그 뒤로 선생은 1973년 김남주 시인의 전남대 ‘함성지’ 사건으로 수감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있을 때였다. 12월 27일 황소실에서 박석무 무죄, 이강, 김남주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해 석방됐다. “풀려날 때까지 1973년 한 해 동안 감옥생활을 했는데, 시국사범에게 들어오는 도서 검열이 굉장히 심해요. 검열을 피하려고 아예 한문책을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 **썩뚱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산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유각볼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뚱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뚱(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어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의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입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KFA, KET, EMI, LIG,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운용등록: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LIG 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머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머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직권강제, 오십전조개, 오추매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신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